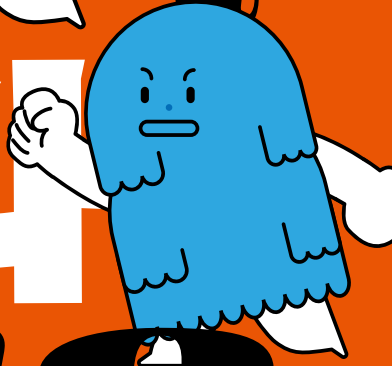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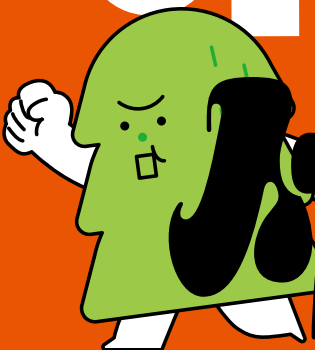
기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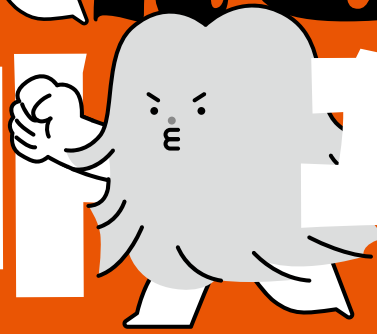
아니라



세계상을



바꿔주세요



907 기후정의행진 가이드북

홈페이지 보기

글 실는 순서

- 2 글 실는 순서 / 조직위 안내
- 3 907 기후정의행진, 슬로건
- 4 907 기후정의행진, 우리는 어떤 싸움을 만들 것인가
- 7 907 기후정의행진, 우리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 10 907 기후정의행진, 미리 만나는 방법
- 11 907 기후정의행진, 함께 하는 방법
- 13 907 기후정의행진, 당일 프로그램과 행진 안내
- 14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 action4climatejustice.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924climatejustice

인스타그램 : www.instagram.com/907climatejustice

X(구 트위터) : x.com/924climate

유튜브 : www.youtube.com/@907climatejustice

텔레그램 공식채널 : t.me/CJM923

907기후정의행진

슬로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올 여름도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과 폭우, 예측불허의 기상이변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과 그 토대는 험사리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충분한 재난 안전 대책을 세우는 대신 온갖 토건 개발 사업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핵산업을 지원하고 초고압송전탑을 늘리려 합니다. 대파 값이 걱정인 서민은 아랑곳없이 민간 자본에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공존의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지금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생태계 파괴와 화석연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이들과 힘껏 외칠 것입니다.

이윤만 추구하는 사회를 넘어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향해 함께 행진합니다.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에 모입니다. 함께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꿉시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만들 것인가

1) 기후 위기를 만든 세상

지난 7월 21일 지구 표면온도가 17.09도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과학적 데이터는 이미 기후 위기가 재앙으로 치닫고 있음을 연일 보고한다. 과학이라는 언어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연일 이어지는 폭우와 폭염을 겪으며 기후 재난을 직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재난이 단순히 이상기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고, 폭염을 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먹거리와 터전을 지키는 농민들이 모든 것을 잃는 현실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기업은 자본의 이익과 이해를 같이 하며 국민들의 안전에는 무책임하지만 하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재난 대비와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물가 상승 대책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난데없이 동해 석유 시추를 발표하면서 기후 대응에 관심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고, 국가의 경사라며 핵 위험 수출을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경제 성장과 민생

으로 포장하여 반도체 생태계나 원전 생태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장’과 ‘이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해야만 하는 세상에서 화석연료의 사용과 생태계 파괴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기후위기를 야기한 시스템 속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단을 놓지 않으며 일상화된 재난에 눈감으려 한다. 경제 성장의 증기기관차가 멈추지 않는 한 기후위기는 재난에서 재앙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방향에 우리의 삶과 생명은 없다.

2) 우리가 바꿀 세상

이미 기후위기를 이상기후로만 느끼던 시대는 끝났다. 기후가 예측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면서 도미노처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생존을 위협한다. 폭염과 폭우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주거빈곤층, 이상기후에도 작업을 쉴 수 없는 노동자, 때 아닌 한파나 역대급 폭우에 쓰러진 작물을 바라보는 농민, 안전한 이동과 밥상 물가를 걱정해야만 하는 시민 모두 기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과 생태계 파괴가 그 원인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위기조차도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정부와 기업의 야만은 기후 위기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이 속에서 우리의 권리와 존엄한 삶은 잊혀지고, 우리의 노동은 자본 체계 속 하나의 부품으로, 생태계는 이윤을 위한 착취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가 이윤보다는 생명을 말하고, 개발이 아닌 보호를 말하며, 경쟁보다는 공존과 돌봄으로 ‘기후’가 아닌 ‘세상’을 바꾸는 연대를 이루어가야 하는 이유다.

2024년 우리의 행진은 바로 여기, 우리가 바꿀 세상을 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후재난으로 더 이상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도로에서, 폭염에도 한파에도 태풍에도 산사태에도 우리는 안전할 권리가 있다. 자본과 산업을 위해 에너지 수요를 무한정 늘리는 계획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희생과 눈물을 강요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막고 적극적인 화석연료 감축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이 가운데 지역 분산과 노동자·지역주민의 삶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전환은 필수적이다. 신공항 건설과 케이블카, 사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파괴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9월 7일 기후정의행진에 모이는 우리는 모두 기후위기의 당사자다. 2019년 시작한 기후정의행진은 탄소중립의 허구를 깨고 기후정의의 필요성을 말하고,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후불평등 해소와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여전히 답답한 불통의 시대지만, 개인의 작은 힘이 연대의 파도를 만들 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자본과 정부에 맞서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외칠 것이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결정을 하는 자들에게 소리치자. 우리가 너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세상에 외치자. 우리는 그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돌보는 우리가 함께 행진하자. 세상을 바꾸겠다는 우리의 연대와 희망이 907기후정의행진을 통해 더 커질 것이니.

907기후정의행진

무엇을 요구하는가



기후위기와 기후재난, 불평등과 부정의에 맞서 우리 모두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함께 행진하자.

폭우와 폭염, 산사태 등 이상기후로 수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 이상기후는 모두가 겪을지 몰라도, 기후재난은 차별적으로 작동한다. '불평등이 재난'인 것이다. 일상으로 들어온 기후 재난은 야외 노동자에게, 침수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빈곤층에게,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그리고 물가를 걱정하는 시민들에게 가혹하기만 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우리가 겪는 재난에 눈감고 권력과 이윤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자본에게 기후위기와 기후재난의 책임을 묻자. 그리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요구하자.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막고, 탈핵·탈화석연료·공공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행진하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참담하다. 경제 성장과 민생이라는 명분 하에 수명 다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 대책 없는 핵폐기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가동할 뿐

아니라, 그나마 폐쇄되는 석탄발전소의 수천 명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전무하다. 무분별한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은 산과 논밭과 숲터를 파괴한다. 산업과 도시에 전기를 보내려는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끊임없이 추진된다.

‘영업사원 1호 대통령’이 표방한 에너지정책은 결국 이윤과 시장 논리에 충실한 계획이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발전소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무분별한 수요를 줄이고, 생산지와 소비지를 맞추며, 자본의 이윤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에너지 체제에서 시작한다. 우리 삶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탈핵·탈화석 연료·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자.

오직 돈벌이를 위한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 개발 사업을 막고 생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하자.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 생태계 파괴 개발 사업들이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벌어지고 있다. 갯벌과 산을 갈아엎어 공항을 만들고 강을 파헤쳐 댐을 만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녹색 성장’은 토건 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수십 조원의 국민 세금을 더해 결국 기후위기를 가속한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싸움들도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철회축구 농성이나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농성장이 그 자리를 지키고, ‘흘러야 하는 강’을 지키는 텐트에서 밤을 지새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막기 위한 투쟁도 가열차다. 이번 9월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생태계 파괴 개발사업에 맞선 싸움의 현장을 연결하고 생명의 터전을 지킬 것을 요구하자.

우리의 요구

- ◆ 불평등이 기후재난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노동권·기본권을 보장하라.
- ◆ 위기에도 존엄하게 살 권리! 차별 철폐, 돌봄 증진, 공공 의료 및 공공 교통 확충하라.
- ◆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폭주를 멈추고 에너지정의 실현하라.
- ◆ 기업을 위한 무한정 에너지 공급과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는 탈석탄·탈화석연료 계획 마련하라.
- ◆ 민주주의와 공공성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롭게 전환하라.
- ◆ 노동자·시민 주도 정의로운 전환. 기후정의·사회정의에 기반한 산업구조 실현하라.
- ◆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보 사업을 철회하라.
- ◆ 농업재해 대책과 생태농업전환 계획 수립하고, 먹거리기본권 및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고, 동물 착취 시스템을 철폐하라.
- ◆ 무기 수출·전쟁 지원 중단하고, 군비 축소·반전 평화 실현하라.
- ◆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

기후정의행진을 미리 만나는 방법

모든 홍보물 받기 홍보물로 만나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모을 수 있도록 홍보물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거점공간 찾아보기 '우리동네 거점 공간'에서 만나요!



우리동네 거점 공간은, 동네 주민들의 기후정의 알림 공간입니다.

사전 행동에서 만나요!

- ◆ 907기후정의행진 선포식
8.8. (목) 10:00, 세종문화회관 계단
- ◆ 907포스터 홍보행동
(1차) 8.8. 선포식 직후
(2차) 8월 셋째 주 중
- ◆ SNS 참가 선언 : 8월 1일 ~ 31일
피켓 다운로드 : bit.ly/907design
인증샷 보내기 : action4climatejustice@gmail.com

함께 하는 방법

각 지역과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907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이라면, 907기후정의행진 "추진이"가 되어 주세요.

- ◆ "추진이"가 되는 방법 : "추진이" 가입서 작성·제출(오른쪽 QR 또는 링크), 1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
- ◆ "추진이"가 함께 하는 활동
 - 907기후정의행진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참여자를 확대합니다.
 - 907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는 사전행동에 함께합니다.
 - 907기후정의행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팔로우 합니다.
 - 907기후정의행진 참여 선언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 907기후정의행진 웹포스터를 비롯해 각종 홍보물을 SNS에 올립니다.
#907기후정의행진 #기후가_아니라_세상을_바꾸자
 - 907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합니다.



추진이 가입서
작성·제출하기



bit.ly/907추진이

단체(모임)이라면, 907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가입해 주세요.

조직위원회 가입서
작성·제출하기



bit.ly/907조직위

- ◆ “조직위원회” 가입 방법
 - “조직위원회” 가입서 작성·제출(왼쪽 QR 또는 링크)
 - 5만원 이상의 분담금 납부
- ◆ “조직위원회 참여단체”가 함께 하는 활동
 - 단체(또는 모임) 회원에게 “추진이” 가입을 독려해 주세요.
 - 단체 회원들과 함께 907기후정의행진 포스터를 사무실 주변과 동네 곳곳(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전봇대 등)에 부착하여 907기후정의행진을 널리 알려 주세요.
 - 웹포스터 및 각종 홍보물을 단체와 모임의 홈페이지, SNS, 뉴스레터,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세요.
 -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기후정의행진의 주요 요구안을 알리기 위한 집담회·간담회·강연·기자회견·선전전 등을 열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직위원회에 연락 주세요.
(문의 : action4climatejustice@gmail.com, 조직팀 010-7930-0560)
 - 기후정의행진 참가단을 조직해 주세요. 지역별 담당자는 가이드북 15쪽을 참고해 주세요.

907기후정의행진

강일 프로그램과 행진 안내



1) 전체 일정

시간	장소	내용
13:00-14:30	강남대로	사전부스, 오픈마이크
14:40-15:00		장내 정리 및 집회 준비
15:00-16:10		본집회
16:10-17:30	강남대로 → 포스코 사거리	행진&집회 액션, 마무리집회

* 행진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참가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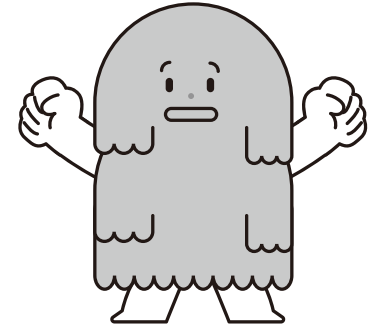
- ◆ 하나, 907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을 참고하여 구호를 만들어 와서 함께 외쳐요.
- ◆ 둘, 냄비나 모래가 든 페트병, 호루라기나 부부젤라와 같이 떠들썩한 도구를 가져와 주세요.
- ◆ 셋, 단체나 참가자의 요구를 담은 피켓과 현수막, 그림 등을 지참하고 참여해 주세요.
- ◆ 넷, 사전에 공유하는 함께 부를 노래, 율동이나 몸짓 등을 미리 보고 오면 더욱 신나는 행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907기후정의행진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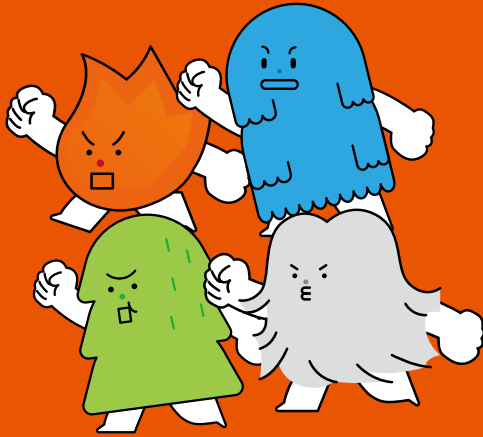


강원	이연주(춘천 등)	010-2312-9322
	하태성(삼척 등)	010-7100-7961
경기	황성현	010-2010-9937
경남	정진영	010-8227-5322
경북	박소영(경산)	010-3506-7815
	이용기	010-2519-7606
광주	김종필	010-5092-1306
대구	이명은	010-9037-6123
대전	박은영	010-6652-4235
안동	서옥림	010-2864-0215
울산	안승찬	010-6587-1287
부산	남영란	010-6333-4395
	박상현	010-7440-5721
서울	민희	010-7930-0560
세종	강형석	010-8650-7863
인천	장시정	010-9084-6806
전남	박수완	010-8856-1634
전북	김상윤	010-2240-2935
제주	김순애	010-4699-5350
충남	조순형	010-2411-1899
충북	송상호	010-7279-1445



907 기후정의행진은 조직위 참여단체
분담금과 추진이의 회비로 만들어갑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조직위 가입과 추진이로 함께해 주세요.

납부계좌 :
IBK기업은행 076-116557-01-011
(기후정의동맹)



907
기후정의행진 **가이드북**